

#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인터페이스 연구 - 일상생활 요인을 중심으로 -

## The Social Interface for Elderly's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Daily Living Factor

이혜민<sup>1</sup>, 반영환<sup>2\*</sup>

Hye-Min Lee<sup>1</sup>, Younghwan Pan<sup>2\*</sup>

### 요약

첨단 IT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은 의료기술의 고도화를 함께 하고 있으며, 현 인류는 글로벌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많은 학문분야에서는 고령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대비하여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삶의 만족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인구사회학 측면의 객관적 지표에서 정서적 측면의 주관적 지표 연구로 확장되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맞이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고령자 계층을 위해 디자인영역 또한 고령자 경험 측면의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 경험을 제공하는 고령자의 관계망을 도출한다.

핵심어 : 사용자 경험, 삶의 질, 글로벌 고령화, 고령자 디자인, 고령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

###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T technologies and related industries, medical technology is being upgraded together, and mankind is experiencing global aging. In many fields of study, welfare and policy for the elderly are continued to study the quality of life in preparation for problems that will result from changes in social structure due to aging. Especially, research on the elderly life's satisfaction has been extended to the subjective indicators looking from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objective indicators to the emotional aspects. In order to experience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experience of newly emerging eld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sign area and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This paper defines as the social interface for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in daily life and suggests the elderly's network that provides emotional support experiences such as social support.

Keyword : User Experience, Quality of Life, Global Ageing, Elderly Design, Social Interface for Elderly

1 Dept. of Experience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hyeminest@gmail.com

2 Dept. of Experience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peterpan@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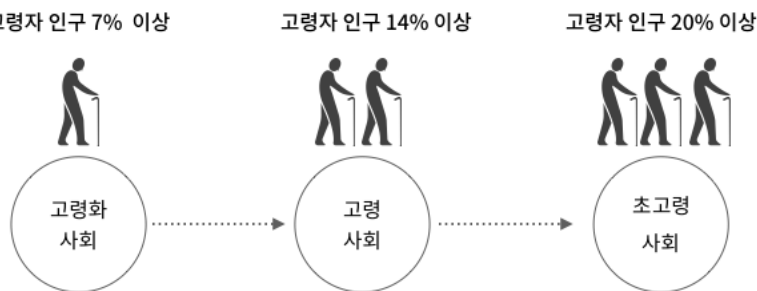
\*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N0001436)

Received(March 28, 2019), Review Result(1st: April 10, 2019, 2nd: May 03, 2019), Accepted(June 03, 2019), Published(June 30, 2019)

# 1. 서론

## 1.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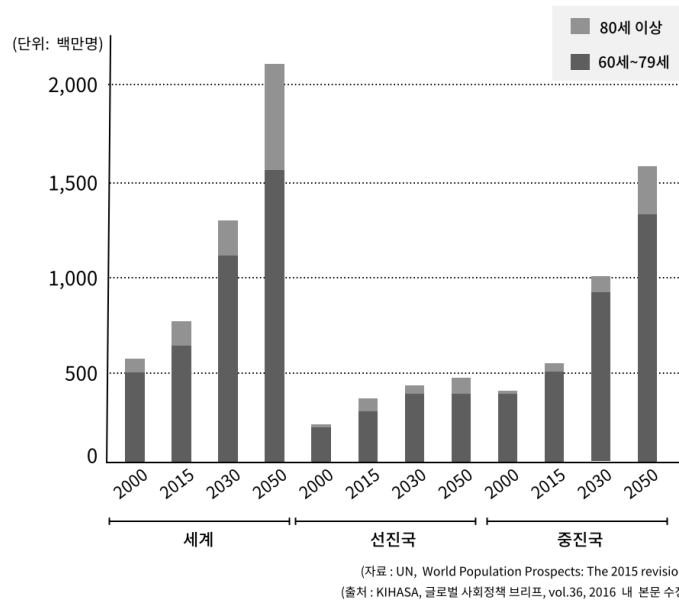
첨단 IT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류는 유·무형으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자원들을 누리며 개인(Personal)과 집단(Community)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게 된다. 이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하여, 인류의 기대 수명을 상승시켰고, ‘100세 시대(百年時代)’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대 수명의 증가는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을 뜻하며, 이는 단순히 인류의 장수를 뜻하는 바가 아닌 고령자 계층에 의하여 사회와 문화 구조가 변화됨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에 해당하는 대상을 ‘고령자’로 정의하며, 사회 구조 변화에 있어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였을 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21%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한다[그림 1]. 현재 한국사회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1].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글로벌 고령화(Global Ageing)’에 대한 뉴스를 각종 매체를 통해 익숙하게 듣고 있다.



[그림 1]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구조  
 [Fig. 1] Soci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 1.1.1 글로벌 고령화

고령자의 장수와 급속도로 진행 되는 인구 고령화로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2015 Revision)' 보고에 따르면 2015년 9억 100만 명이었던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2030년 약 14억 명으로 56% 증가하며 2050년에는 2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2][3][그림 2]. 이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고령 시민(이 논문의 ‘고령자’를 의미함)’이 많아 짐으로, 사회·문화·경제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다.



[그림 2] 글로벌 고령화에 대한 연도별 고령자 연령별 인구 비율 예상

[Fig. 2] Estimation of the Population Ratio of the Elderly by Year in the Global Ageing

글로벌 고령화(Global Ageing)에 있어 주요 국가의 현황들을 살펴보자면, 2015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 국가 인구의 33%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를 맞이한 ‘노인 대국’ 일본이 있다. 뒤이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핀란드가 있고 있으며, 이미 주요 선진국가들은 오래 전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구조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 대국’ 중국의 고령화는 앞으로 증가할 고령자 인구 비율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를 가속화 하는 원인을 한국의 현황으로 설명한다면, 세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표 1].

[표 1]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 요인

[Table 1] Population Ageing Factors in Korean Society

요인	내용
의료 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건강관리’ 이며, 첨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고도화 되는 의료 기술과 관련 산업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의 수준을 향상 시켜 개인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줌</li> </ul>
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 세계적 저출산 국가로 OECD 35개 가입국가 중 출산율 35위의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며, 세계 224개국에서 220위에 속함</li> </ul>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주역세대였던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가 은퇴 후 고령자 계층으로 진입함</li> <li>이는 경제 성장에 있어 생산가능 인구수를 나타냄. 소비계층 또한 30-40대 층에서 50대 이상의 은퇴 고령자 계층으로 확대됨</li> </ul>

첫 번째, 의료 산업의 발전으로 ‘기대수명 증가’, 두 번째, 고령 인구 증가와 비례하는 ‘저출산’ 비율, 세 번째,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50-60년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 활동 은퇴와 고령자 진입’이다[4]. 글로벌 고령화 현황에 대한 국내·외 주요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현황은 [표 2]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2] 글로벌 고령화 따른 주요국가 현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Major Countries with Global Ageing

국가	사회 구조	현황
한국	2017년 고령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고령사회 진입,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li> <li>고령사회를 맞이하기에는 국가 및 정책적으로 준비가 미흡</li> <li>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li> <li>과거 유교 문화의 부모 부양 문화가 자식들의 부양이 아닌 '나 스스로'의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li> </ul>
미국	2013년 고령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는 아니나 ‘최악’을 예방하는 고령화 복지정책</li> <li>2013년 고령사회 진입. 친 고령화를 위한 신산업 영역이 등장 할 정도로 고령화에 대하여 신속한 대비를 함</li> <li>‘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 보장 제도를 통한 국가의 복지 혜택과 시민민사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고령자 복지 서비스가 많음</li> </ul>
E.U. (독일, 스웨덴)	독일 2007년, 스웨덴 2011년 초고령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과 국가가 이룬 ‘고령자(노인)를 위한 나라’</li> <li>국가의 복지 정책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경제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자국의 대기업들의 협조로 고령 기술자들의 재직 및 일자리 유지기간 늘림</li> <li>고용 개혁과 연금 지급의 시기를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상향</li> </ul>
일본	2004년 초고령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령화를 맞이하여 현재 고령자 인구 2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노인 대국’</li> <li>개호 보험 정책으로 개호 및 예방 급여의 복지 혜택 제공</li> <li>지역 내 고령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li> <li>커뮤니티 케어 개념으로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적 건강관리 지원</li> </ul>
중국	2007년 고령화 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베이비 붐 세대이자 출산 억제 정책으로 1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현재 은퇴 및 고령자 계층 진입</li> <li>일정 수준이상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음</li> <li>중국내 많은 실버산업이 확산되면서 실버타운의 건설이 많아 졌으나 고령자 계층의 소비는 비례하지 못함</li> </ul>

(자료: 각종 언론 정보 정리)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경제 측면에서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예측하나 이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병리학 관점으로 신체 노화로 인하여 생산 활동 가능한 인구 감소만을 고령화 현황으로 본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자 계층은 과거의 고령자 계층보다

더 높은 학력과 교육 수준을 경험하였으며 지식경제산업에 있어 잠재력이 강한 생산 활동 인구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영역에서는 새로이 맞이할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자 계층을 소비 산업의 엔드유저(End User)로 전망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자들은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으며, 뉴 시니어 산업의 핵심 소비 주체이다[4]. 소비 성향이 낮고 삶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적인 생계 소비만을 하였던 과거의 고령자 계층에 비해 앞으로의 새로운 고령자 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으며 ‘제품’이 아닌 ‘경험’을 구매하는 ‘가치적 소비’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을 향유하는 행태와 소비 경향에 따른 새로운 고령자 계층의 신조어들이 파생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탄생과 확장으로 이어진다. 새로이 등장하는 고령자 계층은 ‘경험’을 위한 소비로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정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5].

## 1.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령자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요인 연구로 국외의 연구자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집중을 하였다가 점차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 및 경제적 활동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6]. 여러 학문분야에서는 전문영역에 한하여 고령자 및 고령자 삶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지속해 왔으며 고령화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점들을 모색하고 있다. 더하여, 기업들은 소비와 문화생활의 가치를 물질이 아닌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여, 시장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4].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중요시 연구하는 산업 및 융합디자인영역에서도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이를 적용한 서비스들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제품이나 물리적인 형태를 통한 경험 제공 외 비신체적인 측면에서 고령자의 경험을 위한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접점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래 세가지와 같다.

1.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요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와 국내 고령자 통계 자료 결과를 통해 고령자의 주요 사회 관계 구성원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활동 형태를 도출한다.
2. 연구 목적 1번의 도출 결과와 정서적 지원의 하나인 사회적지지를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경험이 이루어 지는 고령자들의 경험 활동 요소를 정립한다.
3. 도출한 고령자의 주요 사회 관계 구성원과 연구 목적 2번에서 정립한 경험 활동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정의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 2.1 매슬로와 앨더퍼의 동기 이론 : 인간 욕구 단계

아브라함 매슬로(1943)가 주장하는 동기는 행동을 결정하는 한 부분으로 모든 행동에 있어 동기를 부여 받는 동시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환경 및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인간의 욕구 5단계(Maslow's hierarchy of needs)를 제안하였다. 욕구의 최 하위 단계로는 '생리적 욕구'이며, 순서대로 '안전 욕구', '사랑(관계)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가장 상위의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위 다섯가지의 욕구는 설명한 순서대로 위계를 이루지만, 위계 순서의 불변성도 존재한다. 매슬로는 기본적인 욕구가 결핍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쉽게 생각했던 해당 욕구들을 우선시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병리학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결핍'이라는 진단을 하는 것과 같이 매슬로도 기본 욕구 다섯 가지 모두 최소한으로 만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7].



[그림 3] 매슬로와 앨더퍼의 동기 이론

[Fig. 3] Maslow and Alderfer Theory

클레이턴 앨더퍼(1972)는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정의한 ERG이론을 주장하였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를 수정하여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 세 가지로 보았다. 존재 욕구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생리적 및 안전과 관련된 욕구이며, 관계욕구는 인간의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이다. 마지막 성장욕구는 자신의 잠재력 개발과 관련된 욕구이다.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된다는 매슬로의 이론과 다르게 상위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하위 단계의

욕구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이론에서는 욕구의 발생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차이를 인정한다[8][그림 3].

## 2.2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일정한 경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들간의 체계를 말한다[9].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를 말할 수 있다. 김보현, 안영선(2008)의 연구에서 고령자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주장하였다[10]. 혈연과 비혈연으로 구성되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적응 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고령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사회적 관계망을 근거로한 개인과 혈연 및 비혈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맺고 있는 인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 하는데[13], 이는 인간과 인간이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비신체적·정서적 효과를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타인과 소통 및 교류를 하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하여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국외 연구 결과로는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과 혈연 중심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 했을 시,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고 하였다[11][14]. 또한, 관련 국내 연구로는 다양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또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험이 적다고 인지하는 고령자 일수록 삶의 만족은 낮으며,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15].

## 2.3 고령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삶의 최저 수준을 측정하는 사회적 지표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보편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12]. 무엇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지에 대한 요인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삶의 질’, ‘삶의 만족’, ‘생활 만족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연구 대상들이 선정되었다[7][16]. 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는 고령자 삶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동시에 변화 시키게 되었으며, 고령자의 웰빙(Well-being)과 삶에 대한 주관적 가치 요소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심수진(2018)의 연구 결과로는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경제적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나 이와 함께 ‘여가 활동’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의 ‘사회적 활동’ 및 소통을 위한 ‘이야기 상대 지원’등과 같은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7].

## 2.4 선행 연구 :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에서는 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인구사회학 측면의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가 아닌 전반적인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를 고찰한다.

리해근, 하규수(2012)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18]. 해당 연구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하여 신체적 건강과 자산의 규모 문제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를 ‘자아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총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표로 주택소유의 유무, 학력, 소득수준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루 일상 생활이 개인의 생활 전반을 포함하고 있음’을 근간으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의 일상생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 그리고 ‘소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로 각각의 일상생활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며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일상생활요인이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아존중 만족도’는 ‘사회적지지’와 ‘여가활동’이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만족도’와 ‘신체건강만족도’는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그리고 ‘건강상태’는 ‘정서상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마지막으로 ‘경제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이 영향요인임을 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 2.5 고찰 결과

매슬로와 앨더퍼의 인간 욕구 단계는 크게 신체와 비신체적인 욕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욕구는 정서적·생리적 욕구와 함께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이 완성된다. 현재 고령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객관적 지표 외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지표들을 통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저수준의 삶을 측정하는 기본적 욕구 외 보편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일상생활을 통한 활동들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라는 연구 대상에게 사회적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은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 요인임을 강조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지지를 통해 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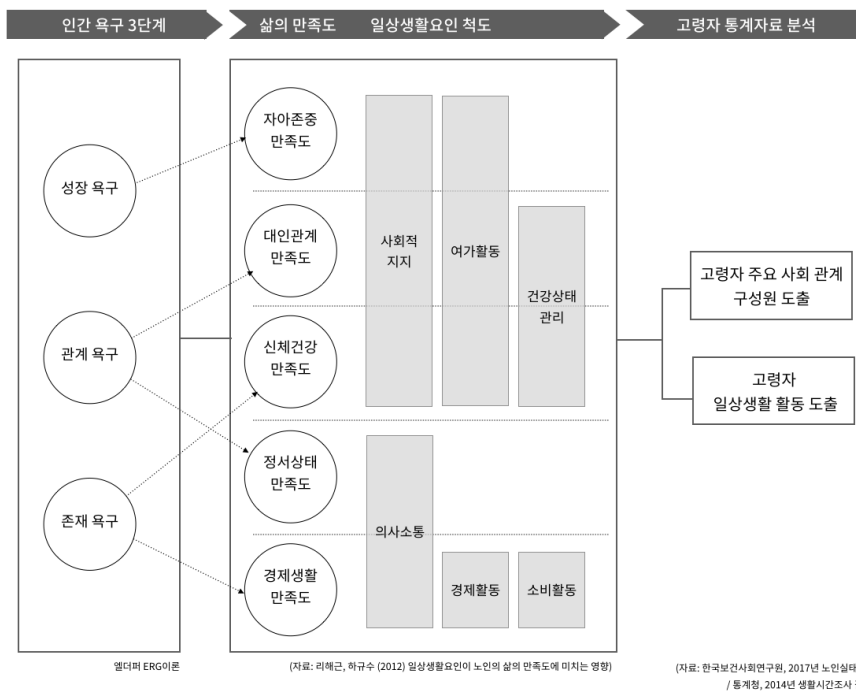
### 3. 연구 방법

#### 3.1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일상생활요인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욕구 단계에 있어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앨더퍼의 ERG이론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섯 가지의 일상생활요인[18]을 연구 분석 모형의 지표로 이용한다. 더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소비 시간 및 활동[19][20]과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내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21]하여, 실제로 고령자의 일상생활 활동과 환경 내 관계를 갖는 주요 대상들을 도출한다.

#### 3.2 연구 분석 모형

다음은 연구 분석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 분석 모형

[Fig. 4] Study Model

### 3.3 연구 자료 분석

연구 분석 모형의 지표를 토대로 국내 고령자 통계 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적 규모에 따른 주요 사회 관계 구성원’을 도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3.1 고령자 연령별 계층에 따른 주요 일상생활 활동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9]에 대한 심층분석[20]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의 능동적/수동적 (여가) 활동시간을 나누었다. 능동적/수동적 (여가)활동시간에 어떠한 활동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전반적 추이 분석을 하였다. ‘능동적 여가활동’은 운동을 포함한 야외활동 그리고 문화 및 각종 관람활동이 해당되며, ‘수동적 여가활동’은 앉아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및 컴퓨터 활용과 같은 미디어 사용시간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내용을 분석한 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의 일상생활 활동들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주요 일상생활 활동들을 도출하였다.

[표 3] 고령자의 일상생활 활동 및 시간  
[Table 3] Daily Activities and Time of the Elderly

순위	관심 활동	지향하는 노후 활동	일상생활 활동	
			비신체활동	신체활동
1	노후소득활동	취미활동	개인위생관리 / TV 및 미디어시청 활동	걷기 산책
2	문화여가활동	소득창출활동	대면교제	개인운동
3	의료요양관리활동	종교활동	휴식활동	사회교제활동
4	-	교육개발활동	자기개발취미활동	기타레저스포츠활동
5	-	-	인터넷정보검색활동	-

[표 3]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 여가활동 시간으로 정의하여 보았을 때, 실제로 통계자료에 대한 결과는 20대부터 30대까지 총 여가시간이 감소하다 40대 이후에 점차 상승하는 구조이다. 주로 비신체적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앞서 언급한 수동적 여가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대한 활동과 앉아서 볼 수 있는 TV 및 미디어 시청 그리고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면교제를 가장 많이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에 대한 시간도 40대 이후부터 증가하다 70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데 그사이 고령자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산책과 개인운동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사회교제활동에 대한(노래, 춤, 집단 놀이 및 게임)에 대한 활동 순이었다.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활동으로는 노후소득과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이며, 경제활동 외에는 주로 건강과 교제활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3.3.2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규모에 따른 주요 사회 관계 구성원

고령자가 소통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는 사회적 관계(배우자, 친인척,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친구·이웃)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반을 두어, 고령자의 주요 관계 구성원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고령자의 주요 사회 관계 형태 및 구성원

[Table 4] Types and Members of th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Elderly's Social Scale

순위	규모	관계 형태		내용
		정서적 지원 (의사소통 및 교류)	도구 및 경제적 지원 (수혜와 제공 상호교류)	
1	자녀	배우자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거자녀에게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도구적 지원 상호교류에 수혜율보다 고령자의 제공률이 더 높음</li> <li>정서적 지원은 배우자(85%)에게 가장 많은 제공받으며 상호 활발한 교류를 갖음</li> <li>정서적 지원은 동거자녀(67.6%)보다 '비동거 자녀(70.2%)'에게 받는 비율이 높음</li> <li>친구·이웃·지인의 수가 친인척에 비해 더욱 많음</li> </ul>
2	손자녀	친구·이웃	동거 자녀	
3	형제·자매	비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4	친구·이웃	동거 자녀	-	
5	친인척	형제·자매 / 친인척	-	

## 4.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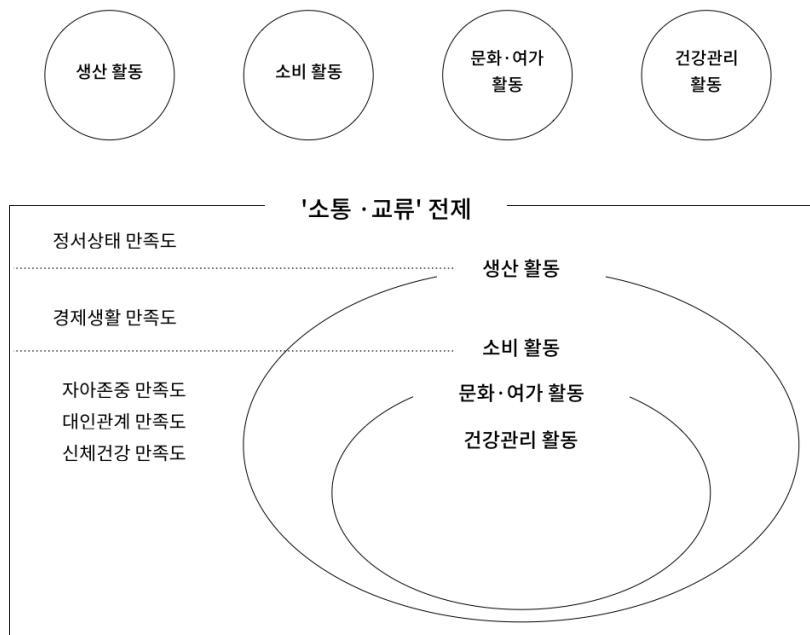
### 4.1 개요

연구 분석 모형을 통해 고령자의 주요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 관계 구성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연구 분석 지표가 되었던 일상생활요인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령자는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 받는 생활 활동이 고령자의 주요 활동이자 지향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인터페이스와 이를 구성하는 경험 요소를 제안한다.

## 4.2 고령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중심의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사용자와 제품(사물)간의 인터랙션(Interaction, 상호작용)을 위한 경험의 접점이다. ‘사회적 인터페이스(Social Interface)’란 ‘소통·교류’ 경험을 기반으로 하며, 물리적이거나 도구의 형태로 제공 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생활활동을 통해 고령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경험의 접점이다. 즉, 사회적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다수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고령자가 얻게 되는 심적/정서적 경험들을 의미한다.

### 4.2.1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경험 요소



[그림 5] 고령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경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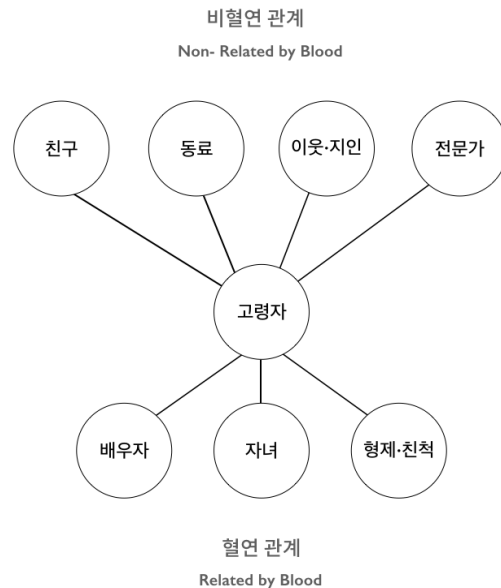
[Fig. 5] Experience Components of Elderly's Social Interface

실제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연령별로 소비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상생활요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데 생활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또한, 고령자의 주요 사회관계 구성원들과 소통·교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 받으며 심적 안정감을 얻는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경험 요소는 총 네 가지로 이는 ‘소통·교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형태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경험 요소는 ‘문화·여가활동’, ‘건강관리활동’, ‘경제활동’, ‘소비활동’으로 정의한다. 연구 분석 모형의 지표였던 일상생활요인에서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 요인은 고령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과

교류가 가능해지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합하였을 때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하고, 동시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활동을 하면서 경험이 이뤄지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그림 5]. 각각의 경험 요소들은 하위 단계 충족 후 상위 단계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상·하위 단계 상관없이 고령자는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경험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4.3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규모에 따른 주요 구성원’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에 대한 주요 구성원을 선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원이 포함되어 분류한 사회적 관계망들 간의 교류를 통해 고령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앞서 정의한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네가지 활동(경험 요소)을 함께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크게 ‘혈연 관계망’과 ‘비혈연 관계망’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총 일곱가지의 관계망으로 구성된다[그림 6].



[그림 6]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Fig. 6] Elderly's Social Network

‘혈연 관계망’은 단어 그대로 혈연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가족을 의미하여 대상의 구성으로는 ‘형제·친척’, ‘자녀’ 그리고 혈연은 아니나 가족의 형태로 ‘배우자’가 해당된다. 손자녀를 통한 정서적 상호교류와 지원은 혈연관계 구성원들 중 그 비율이 가장 낮음으로 관계망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자녀에 포함시킨다. ‘비혈연 관계망’은 가족 외 비혈연 관계로 이뤄진 관계망으로 대상의 구성으로는 가족 다음으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친한 친구’, 생활활동 이나 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 내

‘동료’, 단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지인 혹은 이웃’ 그리고 특정 영역 또는 기관(복지관, 병원 등)에서 고령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전문가’가 해당된다.

## 5. 결론

### 5.1 향후 연구 및 제언

고령화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맞이하기 위해 복지·정책에 관련한 연구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대비하는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디자인영역에서는 발생할 문제에 대한 예방책이 아닌 새로운 고령자 계층과 그 외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는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로는 앞서 도출한 고령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가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며 실증화 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현재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및 서비스들의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의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020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0203.html), Retrieved: September 04 (2017).
- [2] KIHASA, Global Social Policy Brief. (2016), Vol.36.
- [3]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015).
- [4] Samjong KPMG, Samjong INSIGHT. (2017), Issue.49.
- [5] Paul H. Irving, The Upside of Aging, Geuldam, South Korea, (2016).
- [6] Meehye Kim, Kyungrim Shi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2005), Vol.25, No.2, pp.35-52.
- [7] Abraham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Hierarchy of Needs, UXreview, South Korea, (2018).
- [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588&cid=40942&categoryId=31911>, Retrieved: June 23 (2019).
- [9] Sunhae Jung, Jinhyang Lee, Mikyoung Seo,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Effect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on Social Adjustment in People With Mental Illness). (2008), Vol.47, No.2, pp.190-199.
- [10] Bohyun Kim, Youngsun 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Dongkook University(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isur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2008), Vol.15, No.1, pp.141-160.
- [11] Sujie Chang,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oo University(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Social Network in Old Age,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Comparison according to Age and Gender). (2010), Vol.26, No.1, pp.75-100.
- [12] Chulsoo Kim, Seongho Yoo,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oo University(The Investigation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Life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One's Personal Backgrounds). (2009), Vol.25, No.4, pp.51-73.
- [13] S. Cohen, H. M. Hoberma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983), vol.13, No.2, pp.99-125.
- [14] C. Tolsdorf, Family Process(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1976), Vol.15, No.4, pp.407-417.
- [15] Dan G. Blazer,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Social support and mortality in an elderly community population). (1982), Vol.115, No.5, pp.684-694.
- [16] Insuk Kwak,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Life Satisfaction of Future Elderly and the Elderly). (2010), Vol.49, No.1, pp.107-120.
- [17] Statistics Korea, A Basic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2018), Vol.11.
- [18] Haegun Rhee, Kyusoo Ha, Journal of the Contents Association(Effect of the Daily Living Factor on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the Aged). (2012), Vol.12, No.6, pp.280-292.

- [19] Statistics Korea, 2014 Korean Time Use Survey Data. (2015).
- [20] Statistics Korea, A Study on Time Structure of Daily Lives of Korean: Based on 2014 Korean Time Use Survey Data. (2015).
- [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2017 Survey of the elderly. (2017).